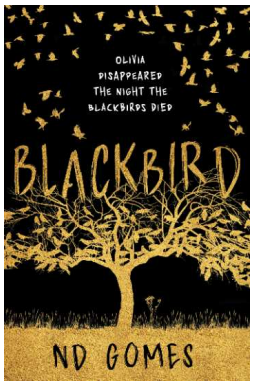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BLACKBIRD
가제 : 블랙버드
저자 : N.D. Gomes
출판사: HQ
발행일: 2017년 11월 16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미국 드라마로도 제작된 *YA* 미스터리 소설 『*13 Reasons Why (*번역서 제목*:* 루머의 루머의 루머*)*』를 떠올리게 하는 살인과 숨겨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

2015년 마지막 날, 알렉스의 언니가 사라졌다. 매년 한 해의 마지막은 두 자매가 꼭 붙어 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새해를 함께 맞이해 왔기에 이번에도 두 사람은 열 시에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엄마아빠까지 네 식구가 늘 해오던 대로 섣달 그믐날의 저녁식사를 함께 마치고 언니 올리비아는 친구네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러, 부모님도 매년 방문하는 연말 행사장으로 떠났다. 하지만 약속한 열 시가 훌쩍 넘어도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 새해가 밝은 후에도,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올리비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극과 아주 가까운 마을, 미국 본토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알렉스는 그 날 밤 텔레비전으로 보도된 기묘한 사건을 잊지 못한다. 무려 5천 마리나 되는 찌르레기, 블랙버드로도 불리는 새들이 한꺼번에 하늘에서 추락해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례 없는 현상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종교계 지도자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목청을 높였다. 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하늘의 뜻이라는 무시무시한 인터뷰 내용이 흘러 나오고,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곧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생수며 생필품을 마구 사재기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등장했다. 새카만 털이 깔린 바닥처럼 거대한 면적을 가득 매운 찌르레기 떼의 모습만큼이나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참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알렉스가 사는 마을은 그 수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진 이 이상한 현상에 의미가 생긴 건 마침 그 날, 올리비아가 사라진 이후였다.

친구 집에서 잠들어버렸다고 생각한 알렉스는 다음 날 아침까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찾아와 울먹이는 엄마와 아빠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돌아간 뒤에도 언니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결국 신고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돌아오지 않자, 언니의 일은 경찰들이 '실종 사건'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붙이고 따로 분류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 알렉스는 엄마, 아빠와 함께 경찰서에 불려가 따로 조사를 받았다.

해가 바뀌고 열다섯 살이 된 알렉스에게 언니는 자매이고 가족이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다. 경찰은 부모님이나 자신과 언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부모님과도 사이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새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발레 공부를 하러 런던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온 식구가 응원하면서도 가슴 깊이 아쉬워했다. 파티에 간다며 집을 나서기 전까지, 집에서 이상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저녁 식사는 아빠와 언니가 같이 준비했고, 모두 둘러앉아 평상시와 다름 없이 식사를 마친 후 언니는 예쁘게 꾸미고 먼저 집을 나섰다. 하지만 알렉스와 집에서 만나기로 한 밤 열 시 조금 전, 시내 어딘가에서 목격된 후 언니는 어딘가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졌다. 알렉스가 이해할 수 없는 건, 텔레비전에 나온 것처럼 크고 넓은 도시도 아닌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언니를 그 시각 이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었다. 주민 모두가 서로 얼굴을 알고, 개개인의 형편까지 알고 싶지 않아도 마을이 너무 좁아 자연스레 다 아는 이런 곳에서 사람 하나가 없어졌는데 본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알렉스에게는 너무 이상한 일이었다.

갑자기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기대와 희망은 날이 갈수록 좌절만 안겨주고 알렉스의 참담한 마음은 깊어만 갈 때 사건 담당자가 된 버켄스 형사만이 꾸준히 올리비아의 자취를 집요하게 뒤쫓는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언니의 비밀, 언니의 실종을 둘러싼 놀라운 사실들이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알렉스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한다.

평범한 여학생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이유를 찾아 나선 친구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소설 『13 Reasons Why (번역서 제목: 루머의 루머의 루머)』와 같은 긴박감이 느껴지는 흡입력 있는 이야기다.

<저자 소개>

N.D. 고메스(N.D. Gomes)는 영국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교에서 미디어와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공립교육 분야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6년에 데뷔소설 『Dear Charlie』를 발표했다.

제목 : PEASPROUT CHEN
가제 : 피스프라우트 첸
저자 : Henry Lien
출판사: Henry Holt and Co..
발행일: 2018년 4월 3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피겨 스케이팅과 무술이 결합된 독특한 예술 스포츠 분야에 전설이 되고픈 소녀의 성장기**
*** 치열한 경쟁과 갈등, 라이벌과의 숨막히는 대결을 흥미롭게 그린 판타지 소설**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서 쿵푸를 한다면?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은 상대를 단번에 제압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고, 쿵푸 특유의 날렵한 몸놀림은 피겨스케이트처럼 우아하고 민첩한 움직임처럼 보일 것이다. '우 리우'라 불리는 이 독특한 예술 스포츠에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재능 많은 소녀 피스프라우트 첸은 우 리우의 본고장, 펄 시티로 유학을 떠난다. 열네 살 어린 첸보다도 훨씬 어리고 겁도 많은 남동생 크리켓과 발에 꼭 맞는 스케이트 외에 가진 건 없지만, 두 남매가 사는 쉰의 여황제가 친히 펄 시티와의 친선을 다질 수 있는 일종의 사절단으로 첸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했다. 게다가 첸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우 리우 아카데미로 꼽히는 '펄 스케이트와 검 아카데미'에 입학할 기회까지 얻었다. 펄 시티로 향하는 큰 여객선 안에서, 첸은 반드시 1등으로 졸업해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선사한 여황제의 명예를 드높이고 당당하게 돌아오리라 굳게 다짐했다.

얼음보다 삐죽삐죽 절벽이 가득한 첸의 고향 쉰에서는 스케이트를 한 번 타려면 인공적으로 물을 얼려서 만든 곳으로 가야만 했다. 우 리우라는 멋진 무술이자 스포츠가 탄생한 지 200년이 넘었지만 쉰에서는 제대로 된 스케이트장을 찾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피나는 연습 끝에 이미 열 살도 되기 전에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쓴 첸은 쉰 지역에서는 최고의 우 리우 선수로 소문이 자자했다. 역사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의 골이 깊게 형성된 펄 시티 시장이 자신의 두 아들을 쉰으로 유학 보낼 테니 이쪽에서도 펄 시티에서 공부할 학생을 뽑아서 보내라고 제안한 것은 첸의 삶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1년 내내 하루도 빠짐 없이, 하루 종일 우 리우를 공부하고 연습하는 최고의 아카데미에서 마음껏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첸은 이곳에 입학한 학생들이 일단 연습량에서 자신과 상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특유의 씩씩하고 겁 없는 성격답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겁을 먹기는커녕, 모두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반드시 최우수 학생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뒤, 더 겁이 많아진 첸의 동생 크리켓은 배가 펄 시티에 가까워오자 울상이 되어버렸다. 낯선 도시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먹이는 크리켓을 보니 첸 역시 울고 싶을 만큼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애써 동생을 안심시켰다. 두 사

람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주고,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괜히 더 힘차게 이야기했지만 동생의 우려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실로 확인됐다. 이미 말투부터가 펄 시티 사람들과 너무 다른 첸과 크리켓은 이들에게 이방인일 뿐이었다.

사실 쉰 사람들은 펄 시티가 노골적으로 자신들에게 내비치는 분노와 불공정한 처우를 오래 전부터 체감하고 있었다. 우 리우가 탄생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인 200여 년 전, 쉰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던 시기에 펄 시티가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 그 분노를 아직까지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첸과 크리켓이 배에서 내려 길바닥 전체가 스케이트 타기에 딱 좋은 '펄'로 되어 있는 펄 시티의 신기한 환경에 놀라며 학교로 향할 곤돌라를 타러 정류장을 찾아 헤맬 때, 꼭 경찰처럼 유니폼을 차려 입은 또래 남학생 두 명이 다가왔다. 쉰에서 온 사람들은 입국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 정보로 첸과 크리켓을 불안하게 만들며 낄낄대던 이들은 첸이 어쩔 수 없이 무술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야 억지로 입을 닫았다. 그러나 펄 시티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이 짓궂은 아이들의 거친 환영 인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입학하자마자 1등이 되리라 다짐했건만, 이미 학교에서 1, 2위를 다투는 두 라이벌 소녀들이 첸의 앞에 버티고 있었다. 펄 시티 사람들에게는 촌구석이나 다름 없는 쉰에서 온 사절단을 크게 반가워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치열한 경쟁이 날마다 이어지던 어느 날, 학교 가까이에 있던 건물이 누군가의 침입으로 초토화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범인으로 첸이 지목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우 리우 최우수 선수 자리를 놓고 다투던 그 여학생들 중 누군가가 시작한 거짓 제보인 것이 확실한데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첸은 점점 더 큰 궁지에 몰린다. 첸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 쉰의 여황제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이 불쾌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진짜 범인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라이벌의 카리스마 넘치는 오빠가 갑자기 첸에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면서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도 고집을 부려 도움을 받기로 했지만, 첸은 그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과연 첸은 건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누명을 씌운 못된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처음 계획한 대로 우 리우 챔피언 자리에도 오를 수 있을까?

독특한 무술 혹은 스포츠가 호기심을 자아내고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이야기에 흥미를 더하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헨리 리엔(Henry Lien)는 대만 출신 작가로 2012년에 글쓰기 워크숍 '클래리언 웨스트(Clarion West)'를 졸업했다. 「Asimov's」, 「Analog」 등에 단편 소설이 실리고 네뷸라 상 후보로 선정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